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65호

발행일 : 2006년 3월 19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실천운동, 소그룹사역 시작되다! 프로그램에서 삶의 실천운동으로,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다. 2개의 그룹으로 현재 출발하며, 조선연-장운경 집사, 심동욱-이영란 집사 가정이 각각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예정이다.

주된 사역은 소그룹 나눔사역과 소그룹 연합지원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그룹사역은 가정의 깊은 부분까지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실천해가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 소그룹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연합함

가정사역팀이 3월 17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실천그룹으로 새롭게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가정사역팀은 크게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전체 그룹과 구체적인 삶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전투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양분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일차 아버지 학교 및 사역자들의 전체 모임이 작년부터 진행되었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상호지원그룹’을 통해 사역의 흐름을 삶의 실천운동으로 바꾸어 갈 예정

로 모여 축하하는 모임을 한다. 이때 모든 가정사역팀 그룹들이 참여하여 강의와 워크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서를 가질 것이다. 조직적인 삶의 실천운동으로 거듭나는 가정사역팀에게 지원과 격려를 해 줄뿐 아니라 많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가정회복 및 성장 운동이 주님의 교회에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부부 소그룹에 참여할 원하는 가정은 박중순집사(011-253-2621)나 정희성목사(010-4227-8252)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3면



캄보디아 이성민 선교사가 전해온 소식.

30CUP WORSHIP SERVICE

2면

오늘은 30CUP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다.

수요예배 전도서 강해 시작

3면

영어예배 1주년 감사

4면

아버지학교/부부세미나

2면

3월 정기당회

제4회 무지개축제는 2006년 5월 5일(금)에 실시 주님의동산 부지 강원도 홍천땅 매입키로

지난 3월 11일 토요일 오전 6시 4층 대회의실에서 3월 정기당회가 있었다. 선교사역본부에서는 캄보디아선교팀 준비위원을 내정하고 추후 실무팀을 보완키로 했으며, 복지사역본부에서는 119 사역팀 스리랑카 ‘희망의 집’ 준공식(4월 18일 - 22일)에 신화식 목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목양사역본부에서는 세례식이 4월 9일(주) 오후 4-6시에 있을 것을 보고하고

06년 제4회 무지개축제를 5월 5일(금)에 실시하기로 보고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김재현 장로를 선임했다. 권오승장로는 사무국 보고로 영선직원으로서 김대영 집사 대신 신희수씨 채용 건을 보고했고, 건물 유지 보수, 운동장 해동 보수작업 실시사항 보고와 건물 유지 보수와 강당 건물 바닥 세척 작업 보고, 운동장 정지작업(5,000만원 소요) 건을 보고했다. 교

역자실 박혜경 간사 사임과 미화담당 직원 2명 채용건도 보고했다.

기타 안건 토의 사항으로는 평양노회에 06년 장로선거 청원인원을 10명으로 선정했고, 06년 선거준비위원장은 이병식장로로 선임했다. 주님의동산 부지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 99, 산 100-1번지 부지 면적 40,356.525평을 주님의동산 부지로 금 11억 범위 내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상세한 진행 일정은 추후 4월 정기당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4부전도 예배 “오늘”에서는 김정택 SBS 음악감독이 와서 간증을 한다. 서울 음대 졸업하고, SBS TV 방송국이 1991년에 개국했을 때부터 지금은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높은 뜻 승의교회 장로로(김동호 목사, 가버나움성가대 지휘자) 섬기고 있다. 그가 클래식을 전공하고서 방송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한 삶의 이야기를 쓴 “달덩이 전도자” (규장출판사)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많이 주었다. 특별히 많은 대중가수들에게 복음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헌신한 김정택 장로의 간증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도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전할 것이다. 4부 예배에서 그의 메시지와 연주를 만날 수 있다.

권오승장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다

현 당회서기로 봉사하는 권오승장로가 지난 16일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국가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권장로는

법을 통한 선교적 자리를 확신하고 아시아법연구소를 만들어 법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터전을 마련해 주

는 사역을 해왔다. 현재 우리교회 선교사역본부에도 전문인선교(일반)팀이 있는데 그 안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모임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면에서 계속)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뒤치닥거리’ 라니요?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은
저의 천사들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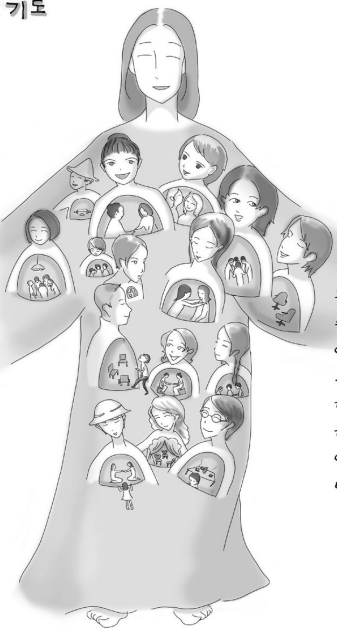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이나 뒷바라지를 나타내는 말은 ‘뒤치닥거리’가 아니고 ‘뒤치다꺼리’이다. ‘사람이 많으니 뒤치다꺼리도 힘들다.’, ‘뒤치다꺼리를 하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처럼 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뒤치다꺼리라니요?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의 저의 천사들이랍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오늘 기도



온몸이
순로문 행각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종사족들이 내 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게 해주세요.

2006.3.19

아버지학교, 부부세미나

감동과 은혜 가운데 막을 내리고



2월12일부터 주님의교회에서 시작한 아버지학교가 부부세미나와 함께 3월 12일(주일) 은혜의 막을 내렸다.

3월 12일에는 아버지학교 국제본부장 김성목 장로의 열강에 지원자 가족은 물론 주님의교회 성도와 일반인도 참석해 공감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홀로 빛으신 남자와 남자의 뼈로서 창조하신 여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자는 과업지향적이며, 아내는 관계지향적이어서 서로 사용하는 표면적 언어는 같을지라도 그 언어속에 내포된 이면적 언어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아내의 칭찬과 인정, 남편의 따뜻한 위로 ‘여보, 힘들지?’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는 행복의 지름길을 천명했다.

이번 아버지학교에는 가정적으로나 신앙적

으로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 지원한 반면 동시에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과 외도, 별거 중, 그리고 이혼 위기 등의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지원자들과 불신자들도 많았다.

또한 주님의교회 김완중 장로를 비롯한 지원자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8년 동안 도박중독자였던 불신자였던 지원자는 5주간의 아버지학교 기간 동안 스텝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한 스텝의 헌신적인 섬김과 기도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후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

또 아내와 별거 중이던 알코올 중독자인 한 지원자는 아내가 한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면 100명을 교회에서 떠나가겠다고 호언하던 사람이었다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뒤 아내와 화해하고 아버지학교에서 지난주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는 20여명의 예비신자(불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부르는 콜링(calling) 시간에 16명의 지원자가 결심으로 응답했다.

눈물과 감동 그리고 은혜의 아버지학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동부 지역에서는 천호성결교회에서 지난 3월 11일 시작했고, 동부23기 아버지학교가 광장교회에서 4월22일 개설한다

PTP기도회



3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PTP(학부모/교사)기도회가 두 주째 맞고있다. 이번 학기는 “21세기 다니엘만들기”라는 주제아래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인도하는 흥민기목사는 “여러분의 자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것이라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

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를 쉬는 두주에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실행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성도들은 이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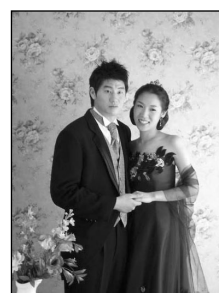
권오승장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다

그 가운데 법조인선교팀을 현재 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권오승장로의 공정거래위원장 발탁으로 인하여 우리교회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일 것이다. 교회의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 하는데는 더 많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이 진행될 때 험통탄 환경이 되도록 동역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취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에 지혜롭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권오승장로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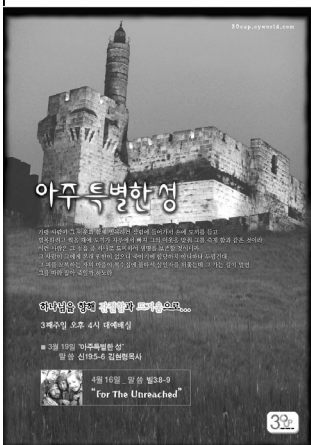
● 함줄함줄의 함줄! 함줄! ●

“함께 축하합니다”

◆ 박상실, 김평수 집사(7-16구역)의 장녀 박효진양이 김나실군과 3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이호목사의 주례로 결혼했다. 호주로 가서 일과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아름답게 가꾸면서 이쁘게 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효도도 열심히 할게요”

30CUP
WORSHIP SERVICE

아주 특별한 성

이제부터 드디어 시작합니다.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3월 19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오늘은 30CUP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다. 2월에
배에서 우리의 삶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
지는 30CUP예배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안으실
것을 기대한다.

언 제 : 3월19일 오후4시
어디서 : 대강당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도 상영된다

■ 4월 예배안내
4월16일 _ 말씀 빌3:8-9
"For The Unreached"

선교지에서 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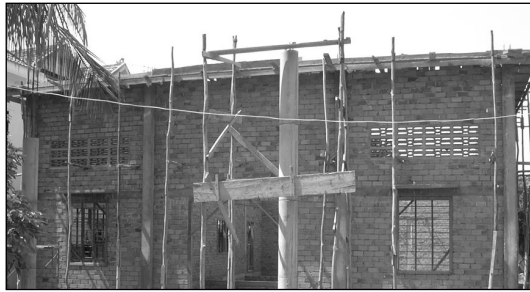
캄보디아 이성민 선교사



작년 10월 아내와 막내 정빈이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잡은 후 5달이 지났습니다. 간간히 짧은 소식들을 전해 드리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더위와 더불어 캄보

디아의 본격 사역이 시작된 듯합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적응은 되었느냐 묻는 분들도 계셨지만 삶에 대한 재적응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 재확인 하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들을 통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지난 해 11월 2일 프놈펜트마이(New Phnom Penh)에 한컴 청소년 센터로 부지를 구입하고 착공예배를 드린 후 건축하기진행 과정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은혜가운데 기둥이 세워지고 골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였고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책임 질 젊은이들의 인격과 교육과 영성을 다루는 귀한 장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캄뎡 주의 교회 리더 훈련과 청소년, 주일 학교 교사훈련이 매월 진행되면서 그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주셨던

부분들을 처음 목적처럼, 이 곳 사랑하는 현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 2월에 많은 단기 팀들이 거쳐가면서 도시에선 대학에서, 지방에선 사역을 돌면서 운동회, 전도집회, 쌀은행 돕기, 도로닦기 등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방문한 팀들은 이제 선교사의 손길이 없이도 너무 잘 계획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지도 이젠 장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장단기가 함께 지속적인 사역을 일구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대학생 사역, 번역, 신학생 지원, 리서치 작업, 교회개혁, 훈련사역 등이 함께 돕는 현지인들과 한국서 온 박윤석 형제, 정다희 자매님과 함께 아름다운 협력으로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사역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인해 속히 이루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미자립교회 자립화 및 목회자 생활비지원 사업

우리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 쪽으로만 치우쳤던 미자립교회 후원을 총회산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 대책과 생활비의 공평한 지원으로 생활비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총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자립화 및 목회자 생활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일로 인해 제정의 어려움을 안고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시로만 몰려있는 목회자들을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간 연대를 통해 목회자 수급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평양노회는 진주남, 김제, 강원노회안에 속한 미자립

교회를 돕게 된다. 그 중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20개의 미자립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돕게 될 것이다.

노회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도 소외당한 곳이 없이 이미 안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균형있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자.

청소년 개학부흥회를 다녀와서...

청소년 개학부흥회를 하기 전에도 매주 토요일 열리는 청소년찬양축제로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방학 때는 모임이 쉬어서 너무 너무 아쉬워하던 중에 친구들로부터 청소년 개학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찬양하러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난 마치 눈 내린 날의 바둑이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원"이라는 장벽이었다. 6시에 끝나는 학원을 마치고, 6시에 시작하는 부흥회에 가기위해 바빠 뛰어 교회에 도착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학원 때문이라는 이유로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친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고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갈 때의 그 열기와 기쁨과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느낌 그대로 세상에 나와 생활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건 나와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같이 흘렸던 눈물이,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찬양과 말씀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접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도 이런 부흥회를 정말 자주해서 수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 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리고 'IN Christ'의 공연은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찬양 못하랴 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나도 정신여중의 신앙 동아리의 팀원으로서 찬양인도자의 마음자세도 배워 갈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 큰 은혜 속에 부흥회가 끝나고 친구,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의 교제시간이 있었다. 참 맛난 김밥과 요구르트 등등의 것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맛있는 간식도 은혜로운 부흥회의 빠질 수 없는 한 요소인 것 같다.

중등2부 3학년 5반 최주연



수요예배, 전도서 강해 시작



3월 15일 수요 예배에서 담임 목사의 전도서 강해가 시작되었다. 수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는 주일에 다루지 못하

는 원어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며 색다른 말씀으로 여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표피를 벗어나 깊은 진국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수요예배이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듯 하나하나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이 귀한 묵상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바란다. 전도서 12장 12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은 피곤하게 하느니라"의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한 담임목사는 전도자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전도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말씀의 여행에 성도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군선교부 부대방문”



지난 주일 군선교가 공군부대를 방문했다. 선교부주체 칸티클싱어즈(합창단)의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 선교팀장인 강진식안

수집사를 포함해 4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호목사는 고전13:9-12의 말씀을 통해 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군생활을 통해 이를 새로운 삶의 관계들에 대해 도전을 주었다. 군생활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이 주신 기회의 땅임을 복음과 함께 전했다. 그리고 살롬찬양대 지휘자인 이동훈집사를 중심으로 칸티클싱어즈의 합창으로 성가 및 가곡을 통해 군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획곡인 재미있는 노래들로 그들과 함께 웃으며 군생활의 새로운 면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일을 채웠다. 이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열정적인 기도부흥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발전소!

지난 3월 15일(수) 유치부실에서 기도부흥회를 이치림 수석할만하다. 기도부흥회는 다름아닌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발전소다. 이는 수요일마다 모이는 구역이끄미모임일정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파트너 양육과정에 참여할 교우들의 개강전 기도모임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구역공

동체를 이끄는 리더그룹이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1차 기도부흥회는 이호 목사의 인도로 뜨겁게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성령을 구하며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경험, 방법론으로만 감당할 때 한계에 부딪치고 지치게 된다.

구역이끄미를 비롯하여 사

역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과 사역현장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군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파트너를 기도로 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도부흥회는 매월 한번씩 진행되며 교역자가 돌아가며 인도한다. 4월 5일 2차 기도부흥회를 기다린다.

주일예배 3부담당 살롬찬양대 봄철 수련회 개최

3부예배 찬양을 드리는 살롬찬양대가 오늘(3월19일 13:00~17:00) 교회에서 봄철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따스하게 다가오는 봄 내음을 맡으며, 친교와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주요 Program으로는, 이창현 목사의 신앙특강, 지휘자 이동훈집사의 음악이론 강의, 영

살롬의 찬양과 율동, 각 파트별 촌극 경연대회, 신입대원 환영회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각 파트별 촌극경연은 Sop(신기한 샘물), Alt(봉숭아 학당), Ten(주바라기), Bss(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소예배실(16:00~18:00)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즐거움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살롬찬양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대원들간의 교제의 장을 좀 더 넓히고, 연합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프타임 첫 모임 성황



개강했다. '음악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살롬 찬양대 지휘자이며 단국대 음대 교수인 이동훈 집사님의 열강에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경청하였다. 강사님은 먼저 우리가 음악적인 관점으로

지난 3월 14일 화요일 하프타임 양육 클래스의 첫 모임이 남여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보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것이 소리를 낼수있는 악기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악기인 성대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음성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로 입으로 직접 나오는 소리를 내지않고 머리의 뒷부분을 한바퀴 돌아 나오는 몸의 소리를 낸다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질수있다고 했으며 모두가 실습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누구나 올바른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을 가르쳐야 하며 음악도 수학과 같은 논리와도 잘 조화 될 수 있는 요소가있어 음악을 잘 소화하는 감성지수를 가진다면 모든 예술과 학문 분야를 잘 이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깊은 신앙심과 아름다운 사랑을 가질수 있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다양한 것에 목적둔 음악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위대한 음악들이 있어 얼마나 축복되며 감사한가를 설명하였다. 강의 중에는 가곡 "님이 오시는 길"을 불러 학창시절의 즐거웠던 분위기를 다시 느껴 보기도 하였으며 끝으로 항상 음악과 친해질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감상하는 마음을 가지므로서 더욱 윤택하고 멋진 인생을 보낼수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있음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강의 후 여성 4개조와 남성 1개조로 편성하여 서로 인사와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가졌으며 향후 15주에 걸쳐 전문 강사님들을 통한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 유익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첫모임을 마쳤다.

3월 청소년연합예배



홍민기 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홍민기목사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영원한 삶에 확신을 가질수없으며 누구든지 비

지난 주일 9시30분, 소예배실에서는 3월 청소년연합예배로 중등1부, 중등2부, 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렸다. 지난해 큰 부흥을 이룬 청소년부서들이 세 개 부서 올해부터 나뉘게 되어 한달에 한번 다함께 모이는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3월에는 크리스천마술사를 초청해 특별순서를 가진후

켜갈수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으며 마지막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 함께 영접기도를 드렸다. 4월에는 부활주일에 연합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청소년 세례식이 준비된다.

영어예배 1주년 감사, 성도들 초청

오늘 3월 19일은 영어 예배 1주년 기념 주일로 EM(English Ministry)공동체로서는 뜻깊은 날이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특별 순서로는 간증과 사진 슬라이드 쇼, 그리고 문동학목사와

홍민기목사의 인사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EM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특별한 이날 많은 성도들이 축하하며 참여하길 원

하고, 다과와 함께 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쁜 선물도 있다고 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EM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